

노인의 생활환경과 정책과제

Living Environment and Policy Issues for the Aged



박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노인의 기본 권리로서, 생활공간인 주거지와 교통환경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삶의 안전성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분석하여, 노인의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 그리고 삶의 안전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거·교통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안전성에서도 취약함이 발견되었다. 이에 고령친화적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제특성별로 생활환경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 취약층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역시 필요하다.

1. 서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령인구의 인권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주거 및 교통과 같은 생활환경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밀접한만큼, 기본적으로 안전하며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령인구의 생활환경 전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 35개 도시를 대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

고, 주거 및 건축, 교통, 야외공간 등에 있어 영역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¹⁾.

한국 역시 노인의 권익 증진과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주거환경, 교통환경, 안전 환경을 분석하여 노인의 생활환경 실태를 알아보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김선재(2009). 서울,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현황

1) 주거환경

주거환경은 먹고, 자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바탕이 되는 공간이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약화 및 경제력 약화와 같은 특성상,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고, 그만큼 주거지의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환경은 노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²⁾

2011년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55.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26.3%, 다세대 11.5%, 연립주택 3.8%, 상가주택 2.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비해³⁾,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단독주택 비율 2008년 60.5%, 2011년 55.7%), 다세대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세대 비율 2008년 5.6%, 2011년 11.5%). 단독주택의 경우 거주비율이 1990년도 83.3%⁴⁾, 2004년도 67.7%⁵⁾, 2008년도 60.5%, 2011년 55.7%로 나타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주거환경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단독주택 38.8%, 아파트 36.6%), 읍·면부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인(91.4%)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주거지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이 62.9%로 높고 아파트는 18.5%로 전체 26.3%보다도 낮지만,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34.0%로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의 거주율이 낮아지고(제1오분위 64.9%, 제5오분위 40.7%),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제1오분위 16.5%, 제5오분위 42.3%).

주거위치를 살펴보면 전체의 97.4%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지하 2.1%, 지하 0.4%, 옥탑 0.1%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신체적 약화 등의 이유로 주거지에서의 생활시간이 길고, 그만큼 주거지의 생활환경의 안전성 및 편리성은 노인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주거지의 생활편리도를 살펴보았는데, 주거지에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은 18.8%로 나타나, 전체의 약 1/5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의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동부 15.2% 읍·면부는 26.4%로 읍·면부에서 높게 나타

2)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2004).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3)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가족부.

4)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2004).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5) 상동.

표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단위: %)

특성	전체 ¹⁾	지역		가구형태				연가구소득					2008 년도 ²⁾
		동부	읍·면부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제1 오분위	제2 오분위	제3 오분위	제4 오분위	제5 오분위	
단독주택	55.7	38.8	91.4	62.9	59.0	44.5	56.2	64.9	61.3	60.2	51.3	40.7	60.5
아파트	26.3	36.6	4.4	18.5	25.5	34.0	23.0	16.5	21.2	23.0	28.7	42.3	24.8
연립주택	3.8	4.8	1.6	3.6	3.2	5.4	1.6	4.4	3.2	3.4	4.4	3.5	5.8
다세대	11.5	16.3	1.3	12.4	9.3	14.2	14.9	12.3	12.9	11.4	11.5	9.5	5.6
상가주택	2.4	3.1	1.0	1.7	2.9	1.7	4.3	1.1	1.4	1.8	3.9	3.8	2.5
기타	0.2	0.4	0.1	0.9	0.2	0.1	0.0	0.8	0.0	0.2	0.2	0.1	0.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2) 박명화·하정철·신임희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가족부.

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높으나(65~69세 14.9%, 85세 이상 22.9%)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65~69세 2.1%, 85세 이상 4.9%).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노인독거가구는 29.5%로 높은 반면 기타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는

전체(18.8%)보다 낮은 비율(각각 16.9%, 14.2%)을 보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이 낮고(제1오분위 31.4%, 제5오분위 10.3%),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이 높다(제1오분위 1.9%, 제5오분위 4.5%).

한편, 노인 응답자에게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

표 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상

(단위: %)

특성	전체	지역		연령					가구형태				연가구소득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제1 오분위	제2 오분위	제3 오분위	제4 오분위	제5 오분위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18.8	15.2	26.4	14.9	17.1	23.2	22.2	22.9	29.5	16.9	14.2	19.9	31.4	23.6	16.0	12.6	10.3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78.5	81.6	72.0	83.0	80.1	74.6	73.8	72.2	69.2	80.2	82.5	77.2	66.7	74.3	81.5	85.1	85.2
노인배려설비를 갖춘	2.7	3.2	1.6	2.1	2.7	2.2	4.0	4.9	1.4	2.8	3.4	2.8	1.9	2.2	2.5	2.4	4.5

주: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한 공간을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43.3%가 불편한 공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계단(15.2%), 화장실(10.9%), 문턱(4.6%)순으로, 대체로 높낮이가 있는 장소 또는 화장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불편한 곳의 존재율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연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불편한 공간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가구, 자녀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순이다.

2) 교통환경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5.2명으로 OECD 평균 11.4명보다 높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높다⁶⁾.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8.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한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비율도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노인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연평균 13%의 증가 추세로 전체 교통사고 증가 추세와 비교하면 6배이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이다⁸⁾. 이처럼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

표 3. 노인(65세 이상)의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없음	있음												
	계단	화장실	문턱	부엌·식당	욕실	환기	현관	조명	거실	베란다	침실	복도	기타
56.7	15.2	10.9	4.6	3.3	2.1	1.6	1.2	1.0	0.9	0.7	0.7	0.1	0.8

주: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표 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생활하기 불편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전체	성		연령					가구형태				연가구소득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제1 오분위	제2 오분위	제3 오분위	제4 오분위	제5 오분위
43.3	35.3	49.3	38.1	42.7	46.2	48.7	51.1	53.9	39.6	41.8	45.2	55.1	49.6	42.9	35.8	32.9

주: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6) 도로교통공단(2011),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09년), 도로교통공단.

7) 상동.

8) 도로교통공단(2012), 보도자료: 노인운전자사고 특성분석, 도로교통공단.

인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가해와 피해 모두)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2.8%가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통사고 경험률이 높았으며, 이는 운전 여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교통사고 경험률이 1.0%에 불과한데, 이는 독거노인의 경우 운전 경험이나 외출경험 등이 낮은 편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운전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12.2%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6.3%가 현재 운전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여자는 1.6%에 불과해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연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운전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현재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로 타가구형태에 비해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전 시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21.3%가 그러하다고 응답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한 결과, 야간운전(52.4%), 시야확보(25.3%), 빗길운전(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버스(48.9%), 지하철(19.3%), 자가용(18.4%)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⁹⁾와 비교하면 지하철

표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교통사고 경험률¹⁾

(단위: %)

전체 ²⁾	성		연령					가구형태				연가구소득				
	남자	여자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 이상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제1 오분위	제2 오분위	제3 오분위	제4 오분위	제5 오분위
2.8	4.4	1.6	3.4	3.4	2.4	1.2	1.1	1.0	3.4	3.2	2.3	1.8	2.0	3.3	3.1	4.1

주: 1) 교통사고 경험률은 지난 1년간 교통사고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모두를 합친 값임.

2)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표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운전하는 비율

(단위: %)

전체	성		연령					가구형태				연가구소득				
	남자	여자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 이상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제1 오분위	제2 오분위	제3 오분위	제4 오분위	제5 오분위
12.2	26.3	1.6	22.4	11.9	6.9	2.3	1.1	2.0	16.7	10.9	17.0	2.4	6.1	12.6	17.3	22.9

주: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표 7. 노인(65세 이상)의 운전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운전시 어려움을 느낌 ¹⁾	운전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²⁾					
	야간운전	시아확보	빗길운전	표지판 잘 안보임	신호속도 빠름	기타
21.3	52.4	25.3	12.0	4.5	4.7	1.1

주: 1) 본인응답자 10,545명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함.

2) 운전하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본인응답자 27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의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고(2008년 14.1%, 2011년 19.3%), 자가용의 이용 비율도 증가하였다(2008년도 11.6%, 2011년도 18.4%).

한편, 노인의 59.0%가 외출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26.9%),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2.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외출시 불편함의 유무율을 살펴보면, 동부보다는 읍·면부,

남자보다는 여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외출시 불편함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외출시 불편함이 있다는 비율이 타가구형태에 비해 높다.

표 8. 노인(65세 이상)의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버스	지하철	자가용	택시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휠체어	경운기	없음	기타
48.9	19.3	18.4	6.7	3.1	2.0	0.4	0.2	0.5	0.6

주: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함.

표 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외출 시 불편함 존재율

(단위: %)

전체	지역		성		연령					가구형태				연가구소득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제1오분위	제2오분위	제3오분위	제4오분위	제5오분위
59.0	56.8	63.7	44.8	69.8	44.9	57.7	66.9	73.9	79.5	73.6	53.9	57.8	56.8	73.8	66.9	56.5	53.2	44.6

주: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9)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가족부.

표 10. 노인(65세 이상)의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¹⁾

(단위: %)

없음	있음					
	계단·경사로 오르내리기	버스(전철)타고내리기	교통수단부족	버스·전철역 멈	차량 많아 다니기 위험	기타 ²⁾
41.0	26.9	12.3	6.6	3.0	2.8	7.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2) 기타 응답은 '고르지 못한 인도, 짧은 횡단보도 신호, 대중교통 노선을 모름, 글씨가 작음, 이동수단 이용이 힘들' 등임.

3) 안전환경

노인의 안전사고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⁰⁾. 이에 노인의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조사하였는데, 전체 노인의 4.9%가 지난 1년간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안전사고 경험률이 높고(동부 4.2%, 읍·면부 6.3%), 남자(4.3%)보다는 여자(5.3%)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안전사고 경험률이 6.5%로 타가구형태에 비하여 높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높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이 낮았다(제1오분위 5.5%, 제5오분위 3.2%).

한편,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층을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고, 노인학대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년간 범죄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 2.6%로 나타났으며,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1.8%)보다 여자(3.2%)의 경우 범죄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가(2.9%), 연가구

소득별로는 제3오분위(4.0%)에서 범죄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학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인의 12.7%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13.8%로 읍·면부 10.2%보다 높으며, 여자의 학대경험률이(13.4%) 남자(11.7%)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가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가구소득이 낮을수록(제1오분위 17.0%, 제5오분위 10.2%) 학대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적 함의

한국 노인들의 생활환경을 살펴 본 결과, 주거·교통 및 안전 환경에서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약 및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가정 내 노인을 위한 배려설비를 갖춘 가구가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노인이 생활하기 불편한 구

10) 소비자안전국(2007). 노인 생활안전사고 실태조사. 소비자안전센터.

표 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안전사고·범죄피해·학대 경험률

(단위: %)

특성	전체	지역		성		가구형태				연가구소득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제1 오분위	제2 오분위	제3 오분위	제4 오분위	제5 오분위
안전사고 ¹⁾	4.9	4.2	6.3	4.3	5.3	6.5	4.8	3.8	4.9	5.5	5.6	5.4	4.7	3.2
범죄피해 ²⁾	2.6	2.7	2.3	1.8	3.2	2.9	2.8	2.3	1.4	1.5	2.6	4.0	2.8	2.0
학대경험 ³⁾	12.7	13.8	10.2	11.7	13.4	15.8	11.1	13.2	12.9	17.0	13.3	11.9	11.1	10.2

주: 1) 안전사고란 '집안 내 화재, 가스, 누수 등'을 말함.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범죄피해란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을 말함.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함.

3) 학대란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학대,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을 말함. 본인응답자 10,544명중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함.

조라는 응답도 전체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활하기 불편한 공간의 경우 계단, 화장실, 문턱과 같이 높낮이가 있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었는데, 낙상경험 장소 역시 계단, 화장실/욕실 등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장소¹¹⁾였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¹²⁾.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인의 낙상률 감소와 같은 신체적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고, 나아가 정서적 안전성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령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읍·면부, 여성, 고연령, 독거

가구,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활하기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교통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외출 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9.0%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및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가 꼽혔으며, 노인이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버스 및 지하철(68.2%)임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대중교통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신체적 능력 저하에서 오는 어려움임을 고려할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저상버스 도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¹³⁾ 등을 계속 실시함은 물론, 고연령, 노인독거가구, 저소득가

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낙상장소는 도로 등 실외(56.9%), 계단(12.1%), 화장실/욕실(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바닥이 미끄러워서(29.8%), 다리 힘이 풀려서(24.1%)로 나타났다.

12) 보건복지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2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13) 상동.

구의 경우 외출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응답이 타유형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운전자의 비율은 전체의 12.2%이며,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자가용이라는 비율이 전체의 18.4%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위한 운전재교육 및 고령친화적인 교통시설 보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안전한 생활과 관련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4.9%, 범죄피해 경험률 2.6%, 학대경험률 12.7%로 나타났다. 학대경험률은 2008년 노인실태조사¹⁴⁾ 10.2%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2009년도 노인학대실태조사¹⁵⁾

13.8%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를 통해 학대경험률이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를 늘리고,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¹⁶⁾,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가능한 접근법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학대경험률의 경우 여성, 노인독거가구, 저소득가구일수록 높아, 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해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범죄, 보이스 피싱 및 노인사기성 물품 판매 등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14)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건복지가족부.

15) 정경희, 이윤경, 오영희 외(2010),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16) 보건복지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2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보건복지부.